

[종합·국제]

“6자회담 목표는 北의 모든 핵 폐기”

송민순 외교 “관련국들과 북핵문제 진전에 공감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우리의 목표는 (2차 북핵위기 발생 전인) 2002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8일 재개될 6자회담의 지향점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더 나아가 (북·미, 북·일)관계정상화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까지 목표에 둔 9·19 공동성명의 전체 틀 중에서 시작 부분에

합의하는 것이 차기 회담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기 회담에서 합의할 9·19 공동성명 이행의 초기 조치는 9·19 공동성명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초기 조치는 나머지 부분을 다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그간 초기조치에 대해 관련국간 많은 대화와 의견조율이 있었지만 실제 조율을 거쳐 공동문서로 채택하려면 갈 길이 멀다”며 “공동문서

채택을 기대하지만 그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실제 회담을 해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으로 치면 지금껏 우리가 가보지 못한 산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도달하려면 회담 개회 후 많은 조율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는 긍정적·적극적 사고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초기 조치 합의 상황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9·19 공동성명에 미·북 관계 정상화가 명시돼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및 그와 관련된 행정·법률적 사항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 몸에 매질... 이슬람 모하람절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중북부 라왈핀디에서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의 손자이자 7세기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인 이맘 후세인을 추도하는 모하람절(節)을 맞아 자신의 몸에 매질하고 있다. /라왈핀디로부터=연합뉴스

“힐 평양 보낼 수도 있다”

네그로폰테 미 국무차관 “6자회담 결과 낙관”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오는 8일 재개되는 6자회담의 “주목표는 북한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동결과 국제사찰”이라고 명시하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진전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도 “물론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그로폰테 지명자는 지난달 30일 미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진전에 관한 질문에 “그릇된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낙관할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제재의 효과에 관한 질문에 제재가 “협상을 망치는(disruptive)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협상의 지렛대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하고 후자의 주장을 “어쩌면 똑같이 혹은 더 많이 그럴듯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미 행정부가 대북 협상 측면에서 과거보다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제재를 통해 북한이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한다는 협상-제재의 병행 전략 자체엔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수, 다양”할 것이며, 특히 “북한을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처음으로 불화관계에 놓이게 한 유엔안보리 결의의 만장일치 채택”이 북한의 행동을 “주저케 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외교위원장을 지낸 리처드 루가(공화) 의원은 베를린 북·미 회동 직전 “일부 미 관리들이 핵심 북한 지도부에 대한 여행금지안을 제기한 것으로 들었다”며 “네그로폰테 지명자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누가 이런 (6자 회담) 방해 상황을 지휘하는지 찾아낼 것이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美 공립학교 ‘요코 이야기’ 수업 첫 중단

미국 뉴욕의 한 공립중학교가 한국인을 가해자, 일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해 역사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코이야기’(원제 So Far From The Bamboo Grove)의 수업을 지난달 30일 전격 중단했다.

또 보스턴 지역의 한 공립중학교는 지난 13년간 해마다 계속돼온 요코의 학교 방문 강의를 중단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13년간 지속된 요코의 학교 방문 강의도 중단

뉴욕시 린즈에 있는 ‘제67 공립중학교(MS 67)’는 지난주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코이야기’ 수업에 들어갔으나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29일부터 이 책의 수업을 멈추고 교재로 나눠줬던 책을 수거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허브은 양이 1주일간 수업을 거부한 뉴욕의 라이 컨트리데이학교를 비롯해 로드 아일랜드의 모세 브라운 중학교, 매사추세츠주의 프렌드십 아카데미, 가톨릭 메모리얼 중학교 등 사립학교에서 ‘요코이야기’ 수업을 잇따라 중단했으나 공립학교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러시아도 차기 대권 경쟁중!

푸틴 3연임 불가능... 이바노프 국방 등 부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내년도 퇴임을 앞두고 잠재 대통령 후보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넛판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러시아 헌법상 푸틴 대통령은 3기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권 8년을 마감하게 되며, 후임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2008년 3월 치러진다. 하지만 푸틴이 장기 집권을 꾀할 것

이라는 일각의 분석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유력한 ‘포스트 푸틴’ 후보로는 현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4) 제1 부총리와 세르게이 이바노프(53) 부총리 겸 국방장관, 미하일 프라드코프(56) 총리, 블라디미르 야쿠닌(58) 권 8년을 마감하게 되며, 후임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2008년 3월 치러진다. 하지만 푸틴이 장기 집권을 꾀할 것

(43)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특히 주목받는 후보는 메드베데프 제1 부총리와 이바노프 국방장관이란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 TV 방송에 동정이 가장 많이 소개되는 인물들도 바로 이들이다.

법학 교수 출신인 메드베데프 제1 부총리는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연간 14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과 교육, 주택, 농업 등 4대 부분 개혁을 담당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카스트로 “나는 건강합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3개월만에 건강한 모습을 드러냈다. 쿠바 국영TV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카스트로 의장과 우고 차체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전날 가진 비공개 회담의 내용 일부를 담은 10분 짜리 동영상을 방영했다. 녹화 장면은 병석에 누운 지 반 년을 넘긴 카스트로가 위중하다는 스페인 일간지의 최근 보도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됐다. /AFP=연합뉴스

“北, BDA 안 풀리면 추가 핵실험 할 수도”

북·미 금융실무회의 이틀째, 본격 공방 돌입

북한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 계획을 발표해야 할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북한정부가 가까운 이 소식통이 북한 관리의 브리핑을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측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북한은 오는 8일 열리는 6자회담에서 좌절감을 표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에서 추가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31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금융실무회의 이틀째 회의를 속개해 본격적인 공방을 벌였다.

오광철 북한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과 다니엘 그레이저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

관보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전날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에서 첫 회의를 연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북한대사관으로 옮겨 이틀째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의 달러화 위조나 돈세탁, 마약 밀매 등 불법 행위 혐의를 놓고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면서 회의가 줄다리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톰 케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북미간의 베이징 금융실무회의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많은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의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2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아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아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 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화물배 짬질기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5분 충전으로 2시간 동안 후끈후끈~합니다!★

배전용짬질 용도 이외에 허리, 가슴, 어깨, 손, 발, 무릎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개 구입시 → 35,000원
2개 구입시 → 60,000원 에 드립니다.

★A/S 100%보장★
제품 하자시 신음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문의 : 010-9044-1124 양순남

전업 무료 국비훈련생 모집

모집직종: 정보통신설비

모집기간: 2007년 1월 16일부터(30명 정원 한도내 선착순 모집)

취득자격: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집대상: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이전대학(방송대 포함)·이전대학원·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비전학원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집보호대상자
-장애인
-일반주부(3개월전에 구직등록한 주부)
-수강료 전액 무료
-교재 무료 제공
-교통비 지급(매월 50,000원 → 6개월 총 300,000원)
-우선선정직종수당 지급(매월 200,000원 → 6개월 총 1,200,000원)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분야 100% 취업

모집방법: 학교교무실 상담 및 방문(건강보험카드 지참)

문의전화: 224-4560, 224-4580

주소: 전남여고(전남 김제시)내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위치: 전남여고(전남 김제시)내 ★http://www.hdedu.co.kr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무료문제풀이

개강 2월 1일 = 아간반 진행 =

• 100% 출석시, 수강료 100% 환불 • 문제풀이 수강료 : 100,000원

김중규 행정학문제풀이 특강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개강: 2007년 4월 5일(목), 4월 12일(목) 16:00~22:20), 교수: 김중규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공무원

2007 국가직/지방직대비

개설과목: 행정학, 교육행정, 사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합직, 군무원, 출판관리직,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기술직

800이름 2007년 상반기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2월 1일 (월/목수만 매일 첫진도 개강)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